

종교계... 학계... 국정원 규탄 확산

천주교 광주대교구 3년만에 내달 12일 시국 미사

지역 예수교장로회도 오늘 연합기도회·사발회견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3년 만에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로 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종교인들도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시민단체 위주로 진행되던 규탄 집회가 종교계·학계 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개최된 광주·전남 지역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시국선언·문화제 등도 130차례가 넘게 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다음달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남동 성당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신부·신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시국 선언에 이어 천주교 광주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개최되는 이날 시국 미사는

지난 2010년 3월 영산강 승촌보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 이후 3년 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전남·광주동노회 등 3개 노회 인권위원회도 22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 연합기도회 및 사발 기자회견'을 연다.

인권위는 이날 연합 기도회와 설교를 시작으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사발식을 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일 광주시 남동 성당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신부·신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 미사를 열기로 했다.

전남에서도 126차례에 걸쳐 국정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기자회견·문화제 등이 개최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2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7분 해질 19시 13분 달출 19시 42분 달몰 07시 01분

전통·번개 조심
대부분 지역 비 내리고 전통·번개 치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6/34℃
목포	비	26/33℃
여수	비	26/30℃
나주	비	25/33℃
완도	비	26/33℃
구례	비	25/34℃
강진	비	26/33℃
해남	비	26/33℃
장흥	비	26/33℃
순천	비	24/32℃
영광	비	16/34℃
진도	비	26/33℃
전주	비	25/34℃
군산	비	25/33℃
남원	비	25/33℃
옥산도	비	25/31℃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불쾌지수
위험 높음 매우높음

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목포	02:56	08:07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여수	09:46	03:36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3.0m		22:15	15:4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7/30	26/29	26/31	23/31	23/32	22/31

장애 특수학교 2017년까지 20곳 신설

오는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장애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또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가 신설·증설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7000명 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 충원율이 55.9%에 불

과하다.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를 신설·증설한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도우미수를 현재 2500명에서 2017년까지 3000명으로 늘린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2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연합뉴스

면허신고 안한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 받는다

의료인 면허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4월28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13만명에 대해 면허 효

력정지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 등 총 2800여 명에게 면허효력 정지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허 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법원, 방통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전남대 등 8곳은 항소심 진행중... 최종 확정판 대학측 재정 타격 예상

국·공립대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거둬들이기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1월에 이어 또다시 나왔다.

이번엔 기성회비 예산이 국내 최대인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 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대학 기성회비는 부당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전남대 학생 424명을 비롯 서울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

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인 10만원씩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공립대학들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 전남대 연평균 졸업생이 4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이 진행중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

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한해 졸업생 반환액만 4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반환소송 청구 시효 10년내 학생을 4만명으로 잡으면 4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일부 반환(10만원) 승소 내용을 기반으로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전

남대는 한해 140여원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만일 모든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 전액 반환 소송이 이뤄진다면 반환액은 13조원을 넘어 대학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축을 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걸어왔다. 2009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전체 등록금의 86.9%를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반갑다, 비”

광주·전남 오늘 비소식... 폭염 한풀 꺾일듯

22일 광주·전남 지역에 비소식이 예보되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낮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10~30mm의 비가 내리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비의 양에 따라 광주·전남 전역에 내리진 폭염 특보도 일부 해제되며 폭염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오후 3

시 30분 목포 36.9도, 구례·함평 36.4도, 화순 36.1도 광주 35.7도, 나주 35.2도, 곡성 35.2도, 영광 35.1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2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26도, 낮 최고 기온은 31~33도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해면바다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 전지역의 비 예보는 지난 8월 2일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도서 입국 내국인 1명

올 첫 콜레라 환자 확인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해외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뒤 입국한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 한 명이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18일 인도 델리를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 검역조사 과정에서 비브리오 콜레라 오가와형(V. cholerae O1, Ogawa)균이 검출됐다. 다른 나라에서 콜레라에 걸려 입국한 사례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11명이 보고된 바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환자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ELYSIA 엘리시아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에경사회환 / 축하화분 / 꽃바구니 / 꽃다발
인터넷주문,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정식특선
참조기타 12,000원
생우럭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